

배재고 '탱크데이' 응원 파문... "지역혐오 감정 대응"

광주일고, 대한야구협회 항의 방문... 책임 조치 요청 오월단체·교육계 성명 발표... "용납할 수 없는 행위" 배재고, 진상조사 징계절차 착수... 광주서 사과 예정

정통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배재고 선수들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를 외친 이른바 '스타벅스 조롱 응원' 사태를 둘러싼 공분이 광주·전남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광주제일고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공식 항의한 데 이어 5·18 단체와 교육계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30일 광주·전남 교육계와 오월단체 등에 따르면 야구연 광주제일고 교장과 김

동민 야구부장은 이날 서울 송파구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를 찾아 공식 항의문을 전달하고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광주제일고는 항의문에서 "승패를 떠나 서로를 존중하는 교육의 장인 고교야구 경기장에서 혐오와 조롱의 언어가 여러 학생의 목소리로 울려 퍼진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는 스포츠의 기본이자 교육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산실이자 100년이 넘는 야구부 역사를 가진 광주제

일고는 정의와 공동체 정신을 학교의 가치로 이어오고 있다"며 "이번 일은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는 물론 4만여 동문과 광주시민들에게도 큰 상처를 남겼다"고 강조했다.

학교는 협회에 △상대를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응원과 표현 금지 △선수·지도자·학부모 대상 스포츠 인성교육 강화 △관련 규정 위반 선수와 지도자에 대한 명확한 징계 기준 마련 등을 요청했다.

광주제일고총동창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배재고 논란을 학교 한 곳의 문제가 아닌 승리지상주의와 비인권적 문화를 방치해 온 교육계의 구조적 문제라고 규정하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도 공동 대응을 나섰다. 5·18기념재단과 공법 3단체(유공자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 응원을 '광주와

5·18민주화운동을 비하하고 특정 지역을 혐오한 행위'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관련 학생과 지도자, 심판, 대회 운영진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교육계의 비판도 이어졌다.

광주특별시교사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학생들은 조롱하고 지도자는 방관한 이번 사태는 교육 현장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과거 스타벅스 사태가 제대로 바로잡히지 못하면서 학교 운동장까지 왜곡된 역사 인식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날 서울시교육청과 배재고 앞에 규탄 현수막을 게시하고 학교 측의 사과와 후속 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도 "상처를 받았을 광주제일고 학생과 선수들에게 위로를 전한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스타벅스에도 제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진상조사에 착수했으며, 오는 7월 1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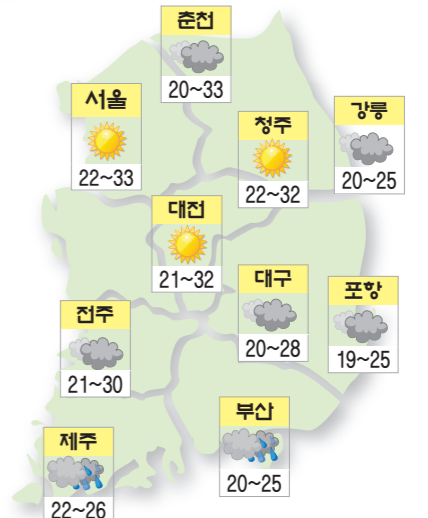
서울시교육청도 사건 경위와 현장 제지 여부, 학생 선수 지도 과정, 학교의 후속 조치 및 재발 방지 교육 계획 등을 종합 점검하고 있다.

배재고는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자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야구부 선수단은 조속한 시일 내 광주를 찾아 직접 사과할 예정이며, 김동연 배재학당총동창회 제30대 회장과 임원들은 배재고 교장의 도의적·관리적 책임을 물어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수 기자 joinsu@gwangnam.co.kr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 맑음 05:22 달맞이 21:02
☁️ 맑음 19:51 달맞이 06:01



| | | |
|-----|----|-------|
| 광주 | ☁️ | 21~29 |
| 목포 | ☁️ | 21~27 |
| 여수 | ☁️ | 20~25 |
| 순천 | ☁️ | 20~27 |
| 구례 | ☁️ | 19~27 |
| 광주 | ☁️ | 20~26 |
| 신도 | ☁️ | 21~25 |
| 흑산도 | ☁️ | 20~24 |
| 진남 | ☁️ | 20~26 |
| 진도 | ☁️ | 20~25 |

| | | |
|----|-------|---------------|
| 목포 | 밀물(고) | 03:14 / 14:54 |
| | 썰물(저) | 08:34 / 20:17 |
| 여수 | 밀물(고) | 09:40 / 22:25 |
| | 썰물(저) | 03:59 / 15:40 |

지주택 조합원 속여 31억 챙긴 대행사 중형 토지확보를 등 허위 홍보로 43명 피해...징역 8년 선고

광주 동구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토지 확보율 등을 허위로 홍보해 조합원 43명으로부터 31억원을 가로챈 업무대행사 대표에게 징역 8년, 벌금 10억 원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A씨(52)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광주 동구 금동 'THE50 센트럴 금동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해 조합원 43명을 속여 차용금과 조합가입계약금, 분양계약금 등 명목으로 총 3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업은 1만4000㎡ 부지에 지하 3층~지상 39층, 39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립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었다.

업무대행을 맡은 A씨는 광주 동구가

인정한 토지확보율이 20.6%에 불과했음에도 80% 이상의 토지를 확보해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 홍보하며 조합원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동구청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여러 차례 시정 요구와 경고를 받고도 토지확보율을 임의로 산정하고 분양 예정 세대를 부풀려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역주택조합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토지 확보율과 분양 예정 세대를 실제와 다르게 거짓 홍보해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상당수는 평생 모은 재산을 확보하지 못한 채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일부는 경제적 상황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며 "범행의 방법과 기간,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영진 기자



서구아너스, '세대를 잇는 평화드림열차'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30일 광주순정역에서 열린 '서구아너스 세대를 잇는 평화드림(Dream) 열차' 출무식에서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과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청소년, 다문화 가족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기환 기자 bluesky@gwangnam.co.kr

전남·광주, 오늘 비 시작...장마철 돌입

남부지방 5~30mm...역대 5번째 늦은 기록

전남·광주지역이 7월 1일 내리는 비를 시작으로 사실상 장마철에 들어설 전망이다. 남부지방 장마 시작 시점으로는 기상 관측 이래 역대 다섯 번째로 늦은 기록이다.

30일 기상청에 따르면 제주도 남쪽 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이 점차 북상하면서 1일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5~3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체전선은 2일 일시적으로 남하한 뒤 3~4일 다시 북상하면서 전국에 장맛비를 뿌릴 전망이다. 6일에도 비가 예보되는

등 당분간 남부지방은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이번 강수 흐름을 시작으로 남부지방이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체전선을 강화시키는 기압계의 위치와 강도에 따라 강수 구역과 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남부지방 장마가 7월 1일 시작될 경우 기상 관측 이래 역대 다섯 번째로 늦은 장마 시작으로 기록된다.

역대 가장 늦은 장마 시작은 1992년 7월

9일이며, 1982년 7월 7일, 2021년 7월 3일, 2014년 7월 2일이 뒤를 잇는다. 1962년과 1987년에도 7월 1일 장마가 시작됐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최저 19~21도, 최고 25~29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겠다. 1일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 기온은 25~29도, 2일은 아침 20~22도, 낮 25~31도, 3일은 아침 20~22도, 낮 26~30도로 예보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기압계 변화에 따라 강수 시점과 지역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주말까지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빗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

광주 고교생 사망...학교폭력 의혹 수사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돼 경찰과 교육당국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30일 광주 광산경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4시 4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오피스텔 옥외 주차장에서 고등학교 2학년 A군(16)이 숨진 채 발견됐다.

A군은 외출한 뒤 가족에게 짧은 문자 메시지를 남겼으며, 현장에서는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A군이 학교폭력 피해자로 몰리면서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아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의 정확한 사망 경위와 함께 학교폭력 의혹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도 A군이 재학 중이던 학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찾아가는 출입국 서비스...계절근로자 '숨통'

"농번기에는 하루가 아쉬운데 출입국 업무를 해주는 출장 서비스를 통해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

지난 23일 고흥군 고흥문화종합회관, 고구마밭에서 일을 마친 라오스 국적 계절근로자들이 차례로 지문 등록을 했다. 손가락에 묻은 흙 때문에 지문 인식이 어려웠던 경우에는 출입국 직원들이 물티슈를 건네며 등록을 도왔고, 통역사의 안내 속에 근로자들은 차례대로 등록 절차를 마쳤다.

전남은 전국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2021년 343명이던 전남지역 계절근로자는 올해 1만5895명으로 40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외

국인 등록 수요도 급증했지만, 광주출입국사무소까지 왕복 수 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불편과 농번기 일손 공백이 지속적인 부담으로 지적돼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목포출장소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찾아가는 이동 출입국 서비스'를 운영해 외국인 유학생과 계절근로자 등 모두 4478명의 등록 절차를 지원했다.

광주출입국은 광주여대, 동강대, 동신

대, 서영대,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등 7개 대학과 강진·고흥·곡성·나주·보성·화순 등 6개 지자체를 찾아 모두 20차례 서비스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유학생 1132명과 계절근로자 893명 등 2025명의 등록을 지원했다.

목포출장소도 무안·영암·완도·진도·해남 등 5개 지자체에서 12차례 이동 서비스를 실시해 계절근로자 2366명과 전문인력 87명 등 2453명의 등록 절차를 마쳤다.



지난 23일 고흥군 고흥읍 고흥문화종합회관에서 '찾아가는 이동 출입국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목포출장소

현장에서 서비스를 이용한 계절근로자와 고용주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고흥군에서 서비스를 받은 계절근로자와 고용주들은 "지문 등록이 1분 만에 끝

났다"며 "출입국사무소까지 왕복 2시간 이상 이동하지 않아도 돼 시간과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나주시에서는 하나은행과 협력해 지문

등록과 외국인 급여통장 개설을 한 번에 처리하는 윈스톱 서비스도 운영됐다. 지난 27일에는 예상보다 많은 397명이 몰리면서 출입국 직원들이 오후 9시까지 업무를 이어가기도 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하반기에도 이동 서비스를 이어간다. 7월 보성군에서 120여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재개하고, 상반기에 운영하지 않았던 영광까지 방문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임은진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외국인 등록은 국내 체류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절차"라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이동 출입국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자체와 민간기관의 협력을 강화해 외국인들이 입국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